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과 그 결정요인[요약]

본 연구는 우리사회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해보고, 청년의 상이한 이행과정을 설명하는 요인을 이론에 기초하여 검증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우리 사회 청년들의 '취업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하는 것이 진부하게 느껴질 만큼, 청년들의 취업난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그 정도도 상상을 초월한다. 이러한 오늘날을 일컬어 '청백전(청년 백수 전성시대)'이라 할 만큼 청년들의 취업난은 이미 만연해있지만, 그 대책은 미흡하다. 최근 '헬조선 탈출(자옥같은 한국을 떠나는 것)'이 청년들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질 정도이니 말이다. 청년들의 '취업난', '구직난'으로 일컬어지는 현재의 상황은 청년들이 학교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이 순조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복잡해지고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파편화되었다는 것을 서구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적해왔다(Furlong and Cartmel, 2006; Walther, 2006). 교육기간의 연장, 생활양식의 다양화, 여성고용증대, 노동시장 유연화, 그리고 개인화에 의해 과거와 같은 단선적이고 일률적인 이행은 사라졌다는 것이다(Walther, 2006). 비슷한 연령대에 있는 청년들이 제조업 공장으로 쉽게 취업을 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통해 생애계획을 꾸려나갈 수 있었던 과거의 모습을 현재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를 이행의 '탈표준화'라고 부르던, '요요 이행(yo-yo transition)'이라고 부르던, 청년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이에 국내에서도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이행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 동안의 선행연구는 노동시장 진입이라는 단일사건의 발생에 초점을 둔 연구와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대별된다. 이 중 단일사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대부분 첫 일자리의 획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하나의 사건이 청년층의 이행과정을 정확히 보여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실제로 청년층은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얻기까지 빈번히 이동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괜찮은 일자리를 잡기 위해 장기간 준비하기도 하며, 몇 번의 구직 시도 끝에 구직을 단념해버리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어버리기도 하는 등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최근에는 이행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 연구들은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이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구체적 과정의 탐색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왜'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즉 왜 청년들간에 상이한 이행형태가 나타나는가? 왜 어떤 청년은 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는데 다른 청년들은 비경황상태나 실업상태에 있다가 취업하는가? 왜 어떤 청년은 취업을 지속하는데 다른 청년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가? 등.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이 다르고, 이행과정에서 대표적인 유형을 찾아낼 수 있다면, 이행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이론에 기초하여 검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즉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이행의 궤적을 추정하고 대표적인 유형을 찾아내어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이 경험하는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패널2차 웨이브 1차~6차 자료를 결합하여 졸업 후 48개월 동안의 노동시장 이행궤적을 추정하고 유형화하였다. 또한 이행 유형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인적자본론, 지위획득이론, 신호이론, 사회자본론에 기초하여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중심추세분석을 활용하여 이행궤적을 추정하고 유형화한 결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은 ①노동시장미진입형(8.6%) ②상급학교진학형(16.1%) ③장기준비형(6.3%) ④단기준비형(16.2%) ⑤불안정노동형(20.2%) ⑥상용이탈형(5.7%) ⑦상용지속형(27.0%)의 7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청년이 속한 유형은 상용지속형이었고, 그 다음으로 불안정노동형과 단기준비형, 상급학교진학형이 모두 15%이상으로 많았다. 둘째, 청년층의 상이한 이행유형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7개 유형에 기초해 취업-미취업, 취업-미진입, 준비후취업-불안정노동-상용취업, 상용지속-상용이탈, 단기준비-장기준비의 다양한 모형을 설계하여 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노동시장진입자체(미취업, 미진입, 준비후취업)는 지위획득이론(가구배경)에 의해 주로 설명되고, 진입의 질적 측면을 나타내는 상용취업여부, 상용지속여부 등은 사회자본론(개인적 인맥)과 신호이론(대학위세도)에 의해 주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적자본론은 청년층의 이행 유형을 제한적으로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뒷바라지'가 가능한 경우 청년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선택', 즉 노동시장 진입을 하지 않거나, 임시일용직보다는 취업준비를 하거나, 심지어 장기간의 취업준비도 가능한 상황임을 함축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기한다. 첫째, 현재 청년고용관련 정부의 정책은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훈련 강화, 직업체험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 직업훈련이나 자격증은 노동시장 진입이나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 어느 곳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고용관련 정책들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함축한다. 둘째,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대졸업자의 경우 오히려 대학졸업자보다 긍정적인 노동시장 이행유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의 원활한 학교-직장 이행을 위해서는 교육체제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취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이 4년제 대학에 무리하게 진학하는 것은 취업자체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등학교 재학시절에 진학 및 진로지도가 더불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행과정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에서 비어있었던 '왜?'에 대한 답을 이론에 기초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청년 노동시장이행에 관한 국내연구는 일관되게 배열 분석을 활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배열분석의 한계인 자의성과 통계적 검증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인 집단중심추세분석을 활용하여 이행궤적을 추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론에 근거하여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이론 검증시 청년의 노동시장이행을 설명하는 이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주된 관심 이론이 선별적으로 분석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가 허락한 모든 이론을 포괄적으로 분석에 포함하여 보다 정확한 분석결과를 얻고자 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지위획득이론, 신호이론, 사회자본론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인적자본론의 영향력이 예상과 달리 작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재의 우리나라 청년이 처한 현실을 보다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가 확보되어 추후에 세부적인 연구가 진행이 된다면 청년층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노동시장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14년 12월 사회복지정책 41권 4호에 게재된 논문임을 밝힙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과 그 결정요인

I. 서론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지 어느덧 십여년이 지났다. 그 동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제정되고 청년실업종합대책(2003년), 청년고용촉진대책(2005년), 청년실업보완대책(2007년), 청년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2010,2011)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이태백'은 어느덧 '이구백(20대의 90%가 백수)'이 되었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15~29세 청년실업률은 1998년 외환위기 전에 4~5%대였으나 외환위기 당시 12.2%(1998년)까지 치솟은 이후, 2000년대에 7~8%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실업률의 2.5배가 넘는 수치이다. 또한 생산가능인구 중 실제 취업하고 있는 청년비율인 청년고용률은 2004년 45.1%에서 2013년 39.7%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¹⁾ 청년들이 최종학교 졸업이후 첫 취업에 이르는 기간이 대략 11개월이고(이태희, 2012:116), 토익·자격증·어학연수 등의 취업스펙비용이 대략 4,000만원²⁾에 이른다고 하니 청년층의 취업난은 이미 상상을 초월한 듯하다.

청년들의 '취업난', '구직난'으로 일컬어지는 이 현상은 교육에서 고용으로의 이행이 순조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공급의 문제, 인적자본 손실 문제라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와 더불어 청년 개인에게는 이후의 고용과 임금수준, 그리고 결혼과 출산이라는 청년기의 다른 중요한 과업에까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³⁾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그 이행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노동시장 진입이라는 단일사건의 발생에 초점을 둔 연구와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대별된다. 전자의 연구들은 취업여부, 이행시기, 일자리 질(정규직여부, 대기업여부, 임금 등)과 같은 이행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양한 이론에 기초하여 분석했다(김안국·강순희, 2004; 박성재·반정호, 2006; 장기영, 2008; 황여정·백병부, 2008; 김정숙, 2009; 성지미·안주엽, 2012 등). 이 연구들은 대부분 첫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청년의 이행을 살펴 보았는데, 과연 첫 일자리의 획득이라는 단일사건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실제로 청년층은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얻기까지 빈번히 이동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괜찮은 일자리를 잡기 위해 장기간 준비하기도 하며, 몇 번의 구직 시도 끝에 구직을 단념해버리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어버리기도 하는 등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최근에는 이행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박진화·김용현, 2010; 권혁진·유호선, 2011; 김성남·최수정, 2012; 문혜진, 2013). 이 연구들은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이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구체적 과정의 탐색에 초점

1) 통계청 e-나라지표, 부문별지표, 청년 고용동향을 참고하였음. <http://www.index.go.kr>

2) 청년유니온이 2012년 조사한 것으로, 대학진학목적이 대부분 취업이기 때문에 대학등록금을 이 비용에 포함시켰다고 한다(경향신문 2012년 5월 30일자)

3) 청년들의 팍팍한 삶으로 인해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는 '4포 세대', 주택구입도 포기하는 '5포 세대'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을 맞추다보니 ‘왜’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즉 왜 청년들간에 상이한 이행형태가 나타나는가? 왜 어떤 청년은 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는데 다른 청년들은 비경황상태나 실업상태에 있다가 취업하는가? 왜 어떤 청년은 취업을 지속하는데 다른 청년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가? 등.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이 다르고, 이행과정에서 대표적인 유형을 찾아낼 수 있다면, 이행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이론에 기초하여 검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즉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이행의 궤적을 추정하고 대표적인 유형을 찾아내어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이 경험하는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유형간의 차이와 그 결정요인을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미시이론에 기초하여 통계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집단중심추세분석을 활용하여 이행의 궤적함수를 통계적으로 추정하여 이행유형을 파악하고, 상이한 이행유형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로짓분석을 통해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었던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관한 연구: 단일 사건(event)으로서의 이행

노동시장 진입 즉 입직에 관한 국내연구는 노동시장 진입여부(취업여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까지 걸린 시간(미취업탈출기간), 첫 일자리의 질(임금수준, 고용형태, 사업체규모 대기업취업여부)등을 통해 파악되었으며, 입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양한 이론에 기초하여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론⁴⁾은 인적자본론, 지위획득이론, 신호이론, 사회자본론, 직업탐색론이다(김종성·이병훈, 2012:238-240). 아래 <표 1>은 이러한 이론에 기초하여 국내에서 진행된 실증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인적자본론에 따르면, 청년층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이행은 개인이 소유한 인적자본에 의해 좌우되며, 인적자본의 축적정도는 학력, 자격증, 직업훈련 등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 본다(김안국·강순희, 2004; 박성재·반정호, 2006 등). 그러나 인적자본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그 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일관되지 않다. 교육수준만 해도 대기업정규직 취업확률이나 임금과 같은 첫 일자리의 질에는 일관되게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취업확률이나 미취업탈출기간에는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안주엽·홍서연, 2002; 이규용·김용현, 2003; 우해봉·윤인진, 2008; 남기곤, 2009). 직업훈련이나 자격증은 미취업탈출기간과 취업확률에 대부분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첫 일자리의 질에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인적자본이 높을수록 ‘좋은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은 커지지만, 취업확률이나 미취업탈출기간은 단순히 인적자본과 정적 관계가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는 연구대상⁵⁾과 노동시장 이행 성과의 지표가

4)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미시이론과 거시이론으로 대별된다. 거시이론은 노동수요와 공급의 측면, 채용패턴의 변화 등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설명하는 이론이고, 미시이론은 청년 구직자 개인이 갖는 다양한 특성과 그의 가족배경, 사회적 연결망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청년층의 입직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선행연구에서는 분석단위가 청년개인이기 때문에 미시이론을 주로 다루고 있다.

〈표 1〉 국내 선형연구 결과 요약

구분	설명변수	결과	종속변수			
			취업여부	미취업 탈출기간	일자리 질	
인적자본 이론	교육수준	(+)	남기곤(2009): 여자는 고졸<전대졸, 대졸	우해봉·윤인진(2008)	이규용·김용현(2003) 우해봉·윤인진(2008)	
		(-)	남기곤(2009): 남자는 ,고졸>대졸	안주엽·홍서연(2002): 고졸>대졸		
	직업훈련경험여부	(+)	장기영(2008):4년제대졸만		이규용·김용현(2003) 장기영(2008):4년제대졸만	
		(-)			성지미·안주엽(2012)	
	자격증 (여부/갯수)	(+)	남기곤(2009) 채구목(2007) ¹⁾ 남기곤(2009) 성지미·안주엽(2012)	이규용·김용현(2003) 강순희·박성재(2002) 이규용·김용현(2003) 우해봉·윤인진(2008)		
		(-)	장기영(2008):4년제대졸만			
		(x)	채창균·김태기(2009) 채구목(2007)	박성재·반정호(2006)	박성재·반정호(2006) 정태영·이기업(2005)	
		(+)	황여정·백병부(2008) 채창균·김태기(2009) 성지미·안주엽(2012)		박성재·반정호(2006): 황여정·백병부(2008) 김정숙(2009)	
	학점	(-)		박성재·반정호(2006)		
		(x)	정태영·이기업(2005)		채구목(2007)	
	영어점수	(+)			박성재·반정호(2006) 성지미·안주엽(2012)	
		(-)	성지미·안주엽(2012)			
		(x)		박성재·반정호(2006)		
	어학연수여부	(+)	성지미·안주엽(2012) 장기영(2008): 4년제졸 만		김정숙(2009) 이자형·이기혜(2011) 성지미·안주엽(2012) 장기영(2008): 4년제졸 만	
		(-)	채창균·김태기(2009): 전문대여자만			
		(x)	채창균·김태기(2009)			
	연수비용	(+)	황여정·백병부(2008)		황여정·백병부(2008)	
	지위획득 이론	부의 학력	(+)			김정숙(2009):전대졸이상만
			(-)	장기영(2008)		
		(x)	남기곤(2009)	이현성(2010)		
모의 학력		(-)	장기영(2008)			
		(x)	채창균·김태기(2009)			
가구소득	(+)	황여정·백병부(2008):고소득 만 장기영(2008): 4년제 졸업경우. 하<중상이상	이현성(2010)	김정숙(2009) 이현성(2010)		
부 직종	(-)	장기영(2008)				
신호 이론	대학 위세도	(+)	채구목(2007): 비수도권사립대<수도권사립대	이규용·김용현(2003) ²⁾	이규용·김용현(2003) 성지미·안주엽(2012) ³⁾	
직업 탐색론	구직횟수	(+)	안관영·조영환(2012)		김정숙(2009)	
사회 자본론	구직경로	(+)	장기영(2008): 비공식경로	김종성·이병훈(2009): 개인적 연결망		

주 ¹⁾ 채구목(2007)의 연구에서는 취득자격증의 전공 및 취업관련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를 활용하였음

²⁾ 이규용·김용현(2003)의 연구에서는 2000년도 수능입학성적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을 3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³⁾ 성지미·안주엽(2012)의 연구에서 대학위세도는 중앙일보 교육개발연구소의 대학서열을 적용하였음

상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이자형·이기혜, 2011:33), 최근 ‘좋은 일자리’를 취득하기 위해 청년들이 취업을 유예하며 취업준비를 하는 경향의 영향으로 이해된다.

5) 대졸자나 고졸자로 한정짓거나, 대졸자도 전문대졸업자와 4년제대학 졸업자를 구분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분석결과가 일관되게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지위획득이론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던컨(Duncan, 1961)은 부친의 직업지위가 자녀의 학력에 영향을 미쳐 이후 자녀에게 부친의 직업지위가 세습된다는 지위획득이론을 주장하였는데(김종성, 2013:24), 국내에서도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부모의 학력과 가구소득, 부의 종사상지위, 부의 직업 등이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 부모의 학력은 예상과는 달리 자녀의 취업확률에 부적영향을 미치지거나(장기영, 2008),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남기곤, 2009; 이현성, 2010). 이러한 결과를 부모학력이 높은 자녀의 취업확률이 낮다고 해석하기보다는 부모의 학력이 높은 자녀는 졸업 후 바로 취업하기보다는 상급학교진학이나 유학 등으로 취업을 유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장기영, 2008). 한편 가구소득은 취업확률, 미취업탈출기간, 첫 일자리의 질에 대부분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여정·백병부, 2008; 김정숙, 2009). 그러나 가구소득의 경우 취업한 자녀의 근로소득이 가구소득에 이미 포함되어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신호이론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개인의 생산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서열이나 인종, 성별 등의 다른 신호에 따라 기업이 개인을 선별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특히 대학위세도(대학지명도나 대학서열)가 신호이론의 대표적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위해 수능입학성적(이규용·김용현, 2003)이나 대학평가순위(성지미·안주엽, 2012)를 사용하거나, 수도권 국공립대/수도권 사립대/비수도권 국공립대/비수도권 사립대(채구묵, 2007)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대학위세도(대학서열)는 취업확률, 미취업탈출기간, 첫 일자리 질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론은 '나'를 둘러싼 여러 타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사회자본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성과를 결정한다고 본다(김종성·이병훈, 2012). 특히 공식적인 직업탐색보다는 본인의 개인적 친분을 통해 더 쉽게 취업한다는 그라노벤테르(Granovetter, 1974)의 연구이후, 국내에서도 청년층의 노동시장성과에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장기영(2008)의 연구에서는 구직경로가 공식경로(직업알선기간등록, 신문잡지, 사업체 방문, 취업박람회 등)인 경우에 비해 비공식경로(교수님 추천, 친구·친지의 소개, 가족사업 등)인 경우 취업확률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업탐색론은 불완전한 일자리정보 때문에 청년층이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에 실패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는 일자리 정보는 구직자의 노력에 따라 획득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으로,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면 취업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입장이다(김종성, 2013:9). 직업탐색론은 소수이나 국내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폴리텍대학 졸업생의 직업탐색행동의 성과를 분석한 안관영·조영환(2012)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력서작성과 같은 예비적 탐색행동이나 취업관련기관 방문, 취업박람회 참석 등과 같은 적극적 탐색행동이 취업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직활동시기를 분석한 김정숙(2009)의 연구에서는 구직활동시기가 빠를수록 대기업 정규직 취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은 청년층의 '첫 일자리'라는 단일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시장 이행을 살펴본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론에 기초하여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과연 '첫 일자리'가 청년층의 이행과정을 제대로 잘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에 관한 연구 : 과정으로서의 이행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는 노동생애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변화양상을 포착할 뿐만 아니라 청년의 노동생애를 총체적인 시각(holistic view)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권혁진·유호선, 2011; 문혜진, 2012; Brzinsky-Fay, 2013). 즉 총체적 시각의 필요성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특성과 이행의 현상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은 최근의 경력사우대 경향속에서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빈번하게 직장이동을 하거나(Brzinsky-Fay, 2007),⁶⁾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면 애초에 진입을 유예하고 취업준비를 하거나, 취업을 포기하고 비정규직이 되는 등의 다양한 이행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이행 형태를 특정시점에서 포착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직장으로서의 첫 번째 이행(‘첫 일자리’)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한 번의 이동으로 청년의 학교-직장 이행과정이 끝났다고 단정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의 미래에 미칠 영향력이나 본질을 고려하면 매우 자의적인 방법이라고 비판한다(Brzinsky-Fay, 2013:218-220).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국내에서도 청년층의 이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몇몇의 연구가 수행되었다(박진희·김용현, 2010; 권혁진·유호선, 2011; 김성남·최수정, 2012; 문혜진, 2013).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보면(표 2), 배열분석으로 이행과정을 분석하고, 배열간 거리에 기초하여 이행을 유형화했다. 노동시장 이행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포섭되어 있는 정도(예.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지위)와 일자리의 질(예. 직업, 고용형태, 사업장규모 등)이 분석되었다. 대표적으로 박진희·김용현(2010)은 노동패널을 활용하여 15-29세 청년의 10년간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지위, 직업의 이행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에 초점을 둔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성별과 학력에 따른 이행유형의 차이만 확인했을 뿐, 그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은 무엇인지는 분석하지는 않았다. 유형별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문혜진(2013)이 유일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노동지위(직장수, 사업장 규모, 고용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외환위기 전후의 청년코호트의 노동경력을 비교하고 코호트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코호트에서 이동형·실직형·미취업형의 불안정노동경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전후의 청년코호트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을 뿐, 그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요인으로 그런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문혜진, 2013:222-223).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하나의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 인식하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행의 구체적 과정을 파악하려고 시도했다는 점, 청년의 노동시장이행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이행과정에서 대표적인 유형이 무엇인지, 그러한 이행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이론에 기초하여 검증하고 해석하려는 시도는 부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년층의 최종학교 졸업이후 48개월 동안의 이행과정을 유형화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설명하는 미시이론에 기초하여 이행유형의 결정요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6) Topel and Ward(1992)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후 10년 동안 평균 7개의 직업을 경험하는데, 이는 전체 노동생애 일자리의 2/3에 해당하는 것이다(문혜진, 2013:204).

〈표 2〉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

연구자	분석자료	분석대상	분석방법	이행상태 변수	유형의 수	유형설명
박진희 김용현 (2010)	노동패널 (1998~ 2008)	1998년 15~29세인 사람의 10년간 경력개발경로 분석 *총 1,001명 분석	배열분석 / 군집분석	경제활동 상태	7집단	취업형/ 노동시장 유지형/ 노동시장 진입형/ 비경제활동형/ 노동시장 퇴장형/노동시장 재진입형/ 노동시장 진입 퇴장 반복형
				종사상 지위	7집단	종사상지위유지형/상향이동형/하향이동 형/고용주전환형/근로자전환형/고용불안 형/종사상지위복귀형
				직업	4집단	전문가형/경력전환형/전이형/직업복귀형
권혁진 유호선 (2011)	청년패널2001 (2001~ 2006)	고졸자 및 대학이상 졸업자의 졸업 후 48개월의 이행과정 분석 *총 2,034명 분석	배열분석	니트, 직업훈련, 비임금근로, 비정규임금, 정규임금	상위5개만 제시. 유형화안함	이행경로1) 니트-정규 이행경로2) 니트 이행경로3) 정규 이행경로4) 니트-정규-니트 이행경로5) 정규-니트
김성남 최수정 (2012)	한국교육고용 패널 (2004~ 2009)	2004년 당시 특성화고 2,000명과 일반고 2,000명 분석 (19~25세까지 7년간 분석) *총 4,000명 분석	배열분석 / 군집분석	일반고 졸업자의 경력개발	5집단	고졸후 지속적 미상형/ 대졸후 취업형/ 병역후 대학복귀형/ 전문대 진학후 지속적 미상형/ 전문대 졸업후 취업형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력개발	4집단	대학재학형/ 고졸후 지속적 미상형/ 고졸후 취업형/ 전문대 및 미상 혼합형
문혜진 (2013)	노동패널 (1998~ 2008) + 청년층 부가자료	1) 90년대 코호트: 90-91년 졸업후 72개월 이상의 노동경력자 2) 200년대 코호트: 00~01년 졸업후 72개월 이상의 노동경력자 *총 848명 분석	배열분석 / 군집분석 / 로짓분석	직장수	3집단	이동형/ 미취업형/ 실직형
				사업장규모	4집단	영세사업장 및 실직형/미취업형/ 무응답군/ 중소기업형
				고용형태	5집단	비정규직형/ 미취업형/ 미취업과 정규직형/ 실직형/자영 및 가족종사자형
				직장수- 사업장규모- 고용형태의 통합배열	12 집단	사무준전문직 대기업 지속형/ 전문직 비대기업 지속형/ 기술직 중소기업 지속형/ 사무직 무응답군 지속형/ 직종 혼합 영세사업장형/ 직종혼합(전문사무) 이동형/ 직종혼합(사무, 준전문) 이동형/ 서비스준전문 무응답군 이동형/ 미취업경과 취업형/ 미취업형/실직형/군복무형

주) 김혜연(2010a:146)을 참고하여 구성함

Ⅲ. 연구방법

1. 자료와 처리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청년층을 대표하는 자료인 청년패널 2차 웨이브(YP2007) 자료를 사용한다.⁷⁾ 청년패널 2차 웨이브(2007~2012)는 2007년 당시 만

15~29세 청년 10,2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시작해 6차 조사(2012년) 현재 7,843명이 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학교생활과 직장생활에 관한 풍부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적합하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는 2007년 최종학교 졸업자와 2008년 최종학교 졸업자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이행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 관측이 필요하다. 관측기간에 따라 이행의 과정과 그 유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측기간이 길어질수록 분석대상자수는 적어지게 된다. 현재 청년패널이 6차까지 조사되었으므로 관측기간과 분석대상자수를 고려하여 2007년 최종학교 신규졸업자와 2008년 최종학교 신규졸업자중, 졸업 후 바로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은 청년의 이행과정을 추적한다.⁸⁾ 최종적으로 2007년 최종학교 졸업자 중 YP2007 1~5차에 모두 응답한 사람과 2008년 최종학교 졸업자 중 2~6차에 모두 응답한 사람, 총 793명의 졸업이후 48개월 동안의 이행상태를 분석한다.

2) 이행상태의 월별 자료 구축 과정

이행과정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과정을 정해진 분석기간 동안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김혜연, 2010: 148). 청년패널 직업력자료에는 청년이 경험한 모든 일자리의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이 월단위로 조사되어 있다. 또한 교육력자료에도 교육의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이 월단위로 조사되어 있다. 이를 연단위로 분석할 경우 청년의 빈번한 노동시장 이동 상태를 간과하는 것이므로 이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월별단위로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노동시장 이행상태를 포착하기 위해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열화하였다. 노동시장진입여부(경제활동여부)와 종사상지위를 두 축으로 순수비경황(0점)에서 상용직 임금근로자(5점)까지 부여하였다. 순수비경황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의미에서 0점을 부여하였고, 비경황-학생은 산업예비인력으로써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순수비경황보다는 크기 때문에 1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비경황사유를 취업준비생을 포함하여 지난 1개월동안 구직활동이나 취업준비, 취업을 위한 통학에 응답한 경우는 실업자 및 준실업자(2점)로 구분하였다.⁹⁾ 또한 18시간미만 무급가족종사자는 현재 일을 하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취업자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실업자 및 준실업자 범주에 포함했다. 다음으로 현 일자리의 종사상지위를 반영하여 비임금근로(18시간이상 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임시일용직 임금근로, 상용직 임금근로를 순서대로 구분하였다.

7) 노동시장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노동패널도 고려하였으나, 노동패널의 경우 청년층을 대표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청년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선택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학력의 변화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문혜진, 2012:36-37)에서 청년패널을 사용한다.

8) 관측기간과 분석대상자수를 확보하기 위해 회고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청년패널 2차 웨이브의 경우 첫 일자리 외의 일자리에 대한 회고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회고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학교 졸업 후 바로 상급학교로 진학한 경우에도 제외하였다.

9) 청년의 경우 취업준비생과 같은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의 구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미취업'으로 구분하거나, NEET로 구분하여 분석하기도 한다(권혁진·유호선, 2012). 그러나 육아·가사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와 더 나은 취업을 위해 잠시 일자리를 보류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을 같은 노동시장의 이행과정에 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실업자 및 준실업자 범주로 포함했다.

〈표 3〉 노동시장 이행상태

구분	순수 비경활	비경활-학생	실업자 및 준실업자	비임금근로	임시일용직임금	상용직임금
점수	0	1	2	3	4	5

위의 이행상태를 월별자료로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자의 경우, 각 일자리의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을 활용하여 그 기간 동안 해당 일자리의 종사상지위 정보를 활용하였다. 이때 현재 일자리의 종사상지위가 무응답인 경우, 해당 일자리 시작 시 종사상지위로 대체하였다. 다음으로 일자리 기간 정보가 무응답인 경우, 새로 시작된 일자리의 시작시점이 무응답이면 시작시점을 조사시점으로 일치시켰다. 일자리 번호가 같은데 기간정보가 없는 경우, 해당 일자리의 이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일자리 시작시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취업자 중, 졸업 후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첫 직장을 가진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을 실업으로 코딩하였다. 또한 일자리와 일자리 사이의 공백 기간, 실업과 취업사이의 공백 기간은 실업(2점)으로 구분하였다. 그 외 취업자임에도 취업기간이나 종사상지위가 모두 무응답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미취업자의 경우, 교육력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대상자 중 졸업이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새로운 학교에 입학한 경우 입학시점과 졸업시점을 확인하여 해당기간의 이행상태를 비경활-학생(1점)으로 구분하였다. 그 외의 기간은 최종학교 졸업시점과 조사시점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시점 이전의 기간은 순수비경활(0점) 또는 준실업자(2점)값을 부여하였다. 실업자 및 준실업자를 추출하기 위해 지난 1개월의 주요 활동상태를 활용하였다.¹⁰⁾ 그 외 비경활 상태 이후의 무응답은 비경활이 지속된다고 판단하여 순수비경활(0)을 부여하였다.¹¹⁾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유형화하고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단계 분석을 수행한다. 1단계에서는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을 파악하고 유형화하기 위해 집단중심추세분석을 사용한다. 집단중심추세분석(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 이하 GBT)은 배열분석(Sequence Analysis)과 같이 개인의 노동생애와 그 ‘과정’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다(김혜연, 2010a: 239). GBT는 관찰기간동안의 동태적인 상태변화과정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유형을 찾는다는 점에서 배열분석과 비슷하지만, 배열분석과 달리 각 그룹의 궤적형태(함수)를 직접 추정할 수 있으며 데이터에 적합한 궤적형태와 그 수에 대한 가설검증을 할 수 있다(Hynes and Clarkberg, 2005:226). 즉 GBT는 배열분석의 한계인 자의성의 문제와 통계적 검증문제¹²⁾를 해결할 수 있으며 방

10) 1차와 2차 조사에는 지난 1개월간 주요 활동상태에 대해 조사되지 않아, 지난 1주간 주요 활동상태 문항을 활용하였다.

11) 예를 들어 SAMPID 49번인 사람의 경우, 2008년 2월에 최종학교를 졸업하고(t=0) 2010년 9월까지 취업상태에 있다가(t=31) 2011년 3월에 대학에 입학하여(t=37) 2012년 2월에 졸업하였다(t=48). 그 이후 2012년 10월(6차 조사시점, t=56)의 상태는 미취업이었다. 이 경우 t1~t31까지는 해당 일자리의 종사상지위값 부여, t37~t48은 학생(1)의 값을 먼저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미취업기간동안 구직과 관련한 활동을 했다면 준실업자(2)의 값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경활(0)의 값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t49이상은 분석기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12) 배열분석이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전에 연구자에 의해 정

법론적으로 유연하고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Jones B. and Nagin D., 2013:609)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GBT에서 최적의 궤적함수를 추정하고 집단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간에 따른 궤적형태를 추정하기 위해 종속변수의 속성에 따라, 기간내 발생한 횟수인 경우는 포아송분포(poisson dist.), 심리척도인 경우 절단정규분포(censored normal dist.), 이분형일때는 이분형로짓분포(binary logit dist.)를 이용하여 궤적함수를 추정한다(Nagin, 1999:144-145).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상태는 엄격한 의미에서 범주형이지만, 노동시장에의 통합정도를 나타내도록 구성하였으므로 서열 변수로 가정하여 절단정규분포로 추정하였다(Jones and Nagin, 2007; 김혜연, 2010a, 2010b). 또한 청년층은 노동시장에서의 이동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식 1>과 같이 시간에 대한 3차함수식으로 궤적을 추정하였다.¹³⁾

$$y_{it}^{*j} = \beta_0^j + \beta_1^j T + \beta_2^j T^2 + \beta_3^j T^3 + \epsilon \quad < \text{식 1} >$$

GBT는 모집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이한 발전경로를 갖는 몇 개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Nagin, 1999:140). 따라서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는 과정은 앞서 결정된 궤적 함수식에 기초하여 데이터에 가장 잘 맞는 최적의 집단수를 찾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GBT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한다. 최적의 집단수를 발견하는 과정은 1집단 모형부터 시작하여 집단수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며 <식 2>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각 모형의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를 기초로 결정한다.

$$BIC = \log(L) - 0.5 * \log(n) * (k) \quad < \text{식 2} >$$

$$(\text{여기서, } \log(L) = \log \prod_{i=1}^N P(Y_i))$$

일반적으로 최적모형은 BIC값이 가장 큰 것으로 선택하는데, 종종 집단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도 BIC가 계속해서 커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집단수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BIC값의 차이를 토대로 하거나(Johnes, Nagin and Roeder, 2001; 김혜연, 2010a; 김혜연, 2010b; 홍백익·김혜연, 2010), Bayes Factor를 이용하여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Nagin, 1999:146-149). 본 연구에서는 복합모형과 단순모형의 BIC차이의 자연로그값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값이 6이상인 경우를 최적모형으로 선택하였다(표 4).

의된 전환비용에 기초하여 배열간 거리가 계산되기 때문에 자의적이고 주관적이며(Levine 2000; Wu 2000), 기술적(descriptive) 분석과 설명에 치중하여 한 경로가 다른 경로와 질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인지에 대한 통계적 판단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민현주, 2012:70). 또한 수많은 배열에서 대표적 유형을 찾아내기 위해 배열분석은 군집분석을 활용하지만, 군집분석으로는 궤적의 수나 함수형태가 타당함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할 수가 없다(Hynes and Clarkberg, 2005:226).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환비용 산출시 표준 배열이나 대체비용행렬을 구해서 반복계산을 하거나, 가설검증이 가능한 다른 방법론과 결합적으로 사용할 것이 제안되고 있다(Brzinsky-Fay, 2013:224).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비판에 대한 방어는 될 수 있으나 궤적추정 시 통계적 확인이 어렵다는 것은 여전히 한계로 남는다.

13)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동의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분석기간이 48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3차 함수로 궤적을 추정하였다. 부가적으로 3차 궤적함수가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2차와 4차 궤적함수식을 활용하여 분석한 후 세 모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3차의 궤적함수식이 본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것을 BIC 값을 토대로 확인하였다.

〈표 4〉 모형적합도 판단기준

ln△BIC	원 모형(H0) 기각 정도	ln△BIC	원 모형(H0) 기각 정도
0-2	기각 못함	6-10	강한 긍정
2-6	긍정적	10 초과	매우 강한 긍정

집단중심추세모형으로 데이터에 가장 잘 맞는 궤적함수식과 집단수를 결정하면, 개별 관찰치가 각 집단에 속할 사후확률이 계산된다. 사후확률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개인이 할당되면, 이행의 궤적이 상이한 집단들의 평균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Nagin, 1999:149-151).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2단계 분석에서는 어떤 요인들이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상이하게 만드는지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analysis)으로 확인한다. 로짓분석에 투입된 설명변수는 청년의 노동시장이행에 관한 미시이론에 기초하여 선정하였다(표 5).¹⁴⁾ 인적자본론을 대표하는 변인으로는 학력, 직업훈련경험여부, 자격증보유여부, 지위획득이론을 확인하는 변인으로는 부모의 학력과 1인당 가구소득,¹⁵⁾ 아버지 종사상지위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신호이론을 대표하는 대학위세도는 선행연구에 따라 수능백분위성적과 대학소재지를 조합하여 구성하였다. 대학소재지만을 대학위세도의 대리변수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수도권 혹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대학이 지방 소재의 대학보다 위세도가 반드시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수능입학성적(백분위비율)을 추가로 고려하여 구분하였다.¹⁶⁾ 마지막으로 사회자본론을 확인하는 변인으로는 구직정보의 취득경로를 포함하였다. 모든 설명변수는 최종학교를 졸업한 해의 값으로 고정하였으며, 기타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통제하였다.

〈표 5〉 변수의 정의

구분	변수명	조작적 정의
종속변수	이행궤적에 기반한 집단	집단중심추세분석 결과
인적자본론	학력	고졸이하(ref.) / 전대졸 / 대졸이상
	직업훈련경험여부 자격증보유 여부	없음(ref.) / 있음
설명변수 (미시이론)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ref.) / 고졸이하/ 전대졸 이상
	어머니 학력	
	1인당 가구소득	전년도 가구소득 자연대수 값(log)
	아버지 종사상지위	무직·사망 (ref.) / 바임금근로자 / 임금근로자
신호이론	대학위세도	기타 (ref.) / 지방소재 4년제 중상위권 대학 / 서울소재 4년제 중상위권 대학
사회자본론	구직정보 취득경로	공식적 경로(ref.) / 비공식적 경로 / 무응답 ¹⁾
통제변수	성별	남성(ref.) / 여성

14) 청년층 노동시장을 설명하는 미시이론 중 인적자본론의 구직노력과 관련된 변수(학점, 영어성적, 어학연수 경험 등), 지위획득이론의 아버지 직업(중분류로만 조사되어 정확한 직업지위를 확인할 수 없음), 직업탐색론과 관련된 변수(구직횟수, 구직활동시작시기)는 조사되지 않아 모형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15) 청년취업자의 경우 청년의 근로소득이 가구소득에 포함되어 내생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청년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구1인당 근로소득을 산출하여 투입하였다.

16) 동일대학이라도 학과에 따라 위세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면 전공까지 고려한 구분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청년패널자료에서는 대학명 변수가 공개변수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었다. 다만 중앙일보 대학평가결과(2007~2008년)를 보면 서울소재여부와 수능성적을 조합한 것으로도 대학위세도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세도 변수의 범주구분이 반드시 서열적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분석결과 해석시 서열적 해석을 가능하면 배제하였다.

구분	변수명	조작적 정의
	연령	만나이
	졸업년도	2007년(ref.)/ 2008년
	지역	수도권(ref.) / 시지역/도지역
	혼인상태	미혼(ref.) / 유배우자

주 1) 공식경력(직업알선기관등록, 신문잡지, 사업체 방문, 취업박람회 등), 비공식경력(교수님 추천, 친구·친지의 소개, 가족사업 등). 미취업자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자는 무응답범주로 처리

IV. 연구결과

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6〉은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다. 2007년 졸업자는 약 40%(316명)이고, 2008년 졸업자는 60%(476명)로 2008년 졸업자가 분석에 다소 많이 포함되었다. 분석대상자는 최소 16세부터 30세까지

〈표 6〉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명		빈도(명)	비율(%)	변수명		빈도(명)	비율(%)
졸업년도	2007	316	39.9	훈련경험	없음	764	96.46
	2008	476	60.1		있음	28	3.54
	N	792	100		N	792	100
성별	남성	332	41.92	자격증유무	없음	539	68.06
	여성	460	58.08		있음	253	31.94
	N	792	100		N	792	100
거주지역	수도권	372	46.97	교육수준	고졸이하	140	17.68
	광역시	295	37.25		전대졸	226	28.54
	도지역	125	15.78		대졸이상	426	53.79
	N	792	100		N	792	100
혼인상태	미혼	769	97.1	부 종사상지위	사망/무직	103	13.05
	유배우자	23	2.9		임금근로자	362	45.88
	N	792	100		비임금근로자	324	41.06
부학력	중졸이하	136	17.17	대학위세도	N	789	100
	고졸	417	52.65		기타	551	72.4
	대졸이상	239	30.18		지방중상위권대학	146	19.19
	N	792	100		서울중상위권 대학	64	8.41
모학력	중졸이하	187	23.61	구직경력	N	761	100
	고졸	498	62.88		공식경력	270	34.09
	대졸이상	107	13.51		비공식경력	214	27.02
	N	792	100		무응답	308	38.89
				N	792	100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연령	792	23.46	3.0192	16	30		
1인당 가구소득	747	2162.14	1380.9360	0.4472136	150001.5		

분포하고 있었으며 평균연령은 23.5세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다소 많고, 약 85%정도가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약 97%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자의 인적자본특성은 다음과 같다. 최근의 높은 대학진학률을 반영하듯 53.8%가 대졸이상이었으며, 전문대졸까지 고려하면 80% 이상이 대학졸업자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우는 32%정도에 불과했고, 직업훈련경험은 절대 다수가 없었다. 다음으로 가구배경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졸이상(30.2%), 중졸이하(17.2%)로 분포하고 있었다. 어머니도 고졸이 62.9%로 가장 많았으나, 아버지에 비해 대졸이상은 적고(13.5%), 중졸이하가(23.6%) 더 많았다. 아버지의 종사상지위는 임금근로자(45.9%)와 비임금근로자(41.1%)가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었고, 사망이나 무직인 경우도 13.1%였다. 가구원1인당 연평균 가구소득은 2,162만원이었다. 대상자의 대학위세도를 살펴보면, 지방소재 4년제 중상위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약 19.2%였고, 서울소재 4년제 중상위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8.4%로 나타났다. 취업자나 구직자의 구직경로는 공식경로가 34%, 비공식경로가 27%, 무응답/해당없음이 39%였다.

2.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화 과정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유형화하기 위해 집단중심추세분석을 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이행 궤적은 졸업이후의 시점(t)에 관한 3차함수로 추정하였으며 1집단모형부터 9집단모형까지 각 모형별 BIC값의 차이를 기초로 판단한 결과, 7집단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전 단계 모형과 비교한 $\ln(\Delta BIC)$ 가 6이상이면 개선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본 분석의 최적모형은 8집단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ln\Delta BIC=6.3996$). 그러나 이 모형의 7집단 비중이 4.1%에 불과한 문제가 있다. 집단비중이 5% 미만인 집단이 존재할 때 해당 모형을 채택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김혜연, 2010a:152),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집단의 사례수가 32명에 불과하여 7집단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표 8>은 7집단모형에서 각 집단에 속할 사후확률을 보여준다. 사후확률은 개인 i가 집단 j에 속할 때 i의 실제 궤적의 추정 확률값을 의미하는 것이다(Nagin, 1999:149-151). 분석결과 개인이 각 집단에 속할 확률이 모든 집단에서 98%이상의 정확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모형별 BIC값 및 집단비중

모형	BIC	$\ln(\Delta BIC)$	집단비중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	5집단	6집단	7집단	8집단	9집단
1집단모형	-59694.89										
2집단모형	-48311.08	9.3399	53.7	46.3							
3집단모형	-44654.07	8.2044	28.9	33.2	37.9						
4집단모형	-42926.96	7.4542	27.9	17.2	24.6	30.3					
5집단모형	-41764.03	7.0587	22.1	10.9	17.1	21.5	28.4				
6집단모형	-40873.74	6.7915	10.9	17.9	5.9	20.5	16.4	28.3			
7집단모형	-39993.29	6.7804	8.6	16.1	6.3	16.2	20.2	5.7	27.0		
8집단모형	-39391.68	6.3996	15.9	6.2	6.4	17.9	17.6	7.0	4.1	24.8	
9집단모형	-39263.99	4.8496	9.0	17.5	6.4	11.1	5.8	17.8	8.8	4.3	19.2

〈표 8〉 각 집단에 속할 사후확률

할당된 집단 (사례수)		지정된 집단에 속할 사후확률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	5집단	6집단	7집단
1집단	(68)	0.993	0.006	0.000	0.000	0.001	0.000	0.000
2집단	(127)	0.001	0.996	0.000	0.000	0.002	0.000	0.000
3집단	(50)	0.000	0.000	0.989	0.001	0.010	0.000	0.000
4집단	(129)	0.000	0.000	0.001	0.987	0.001	0.007	0.005
5집단	(160)	0.000	0.003	0.001	0.003	0.989	0.003	0.000
6집단	(44)	0.000	0.000	0.000	0.002	0.012	0.987	0.000
7집단	(214)	0.000	0.000	0.000	0.002	0.000	0.002	0.996

3.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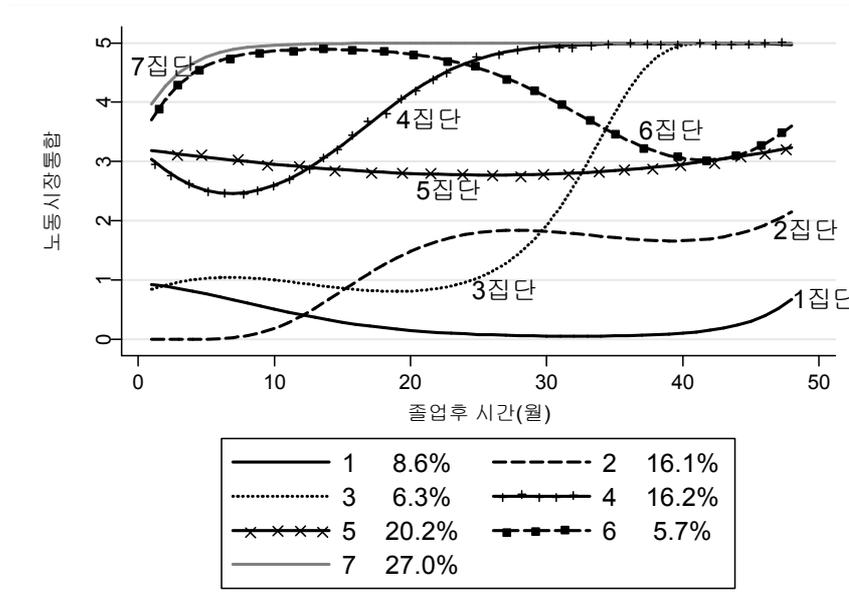
〈그림 1〉은 7집단모형에 따른 청년층 노동시장의 이행궤적을 보여준다.¹⁷⁾ 전체 분석대상자의 8.6%(68명)가 속하는 1집단은 졸업이후 48개월 동안 대부분 순수 비경활상태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미진입형’이라고 명명하였다. 2집단(16.1%, 127명)은 최종학교 졸업이후 1년 동안 비경활상태를 지속하다 그 이후 시점부터 학교에 재학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재수 후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급학교진학형’이라고 부른다. 3집단(6.3%, 50명)은 졸업 후 24개월까지 비경활·실업/준실업 상태를 유지하다 24개월 이후부터 상용직 임금근로의 상태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집단을 ‘장기준비형’이라고 부른다. 반면 분석대상자의 16.2%(129명)가 속하는 4집단은 졸업 후 1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상용직 임금근로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기준비형’이라고 명명하였다. 5집단은 최종학교 졸업이후 전 기간동안 임시일용직과 실업/준실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특징을 보인다. 분석대상자의 20.2%(160명)를 차지하는 이 집단을 ‘불안정노동형’으로 부를 수 있겠다. 가장 적은 집단비중(5.7%, 44명)을 보이는 6집단은 졸업이후 6개월 내에 대부분 상용직으로 입직했으나, 20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상용직에서 이탈하여 실업/준실업과 순수 비경활 상태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상용이탈형’이라고 명명하였다. 반면 7집단은 최종학교 졸업이후 6개월 내에 상용근로자로 대부분 입직을 하고 관찰기간동안 상용근로를 지속하고 있는 집단으로 ‘상용지속형’(27%, 214명)이라고 명명하였다. 7개의 노동시장 이행유형 중 가장 규모가 큰 유형은 상용지속형(27%)이고, 그 다음이 불안정 노동형(20.2%)과 단기준비형(16.2%)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않는 미진입형이 8.6%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4.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별 특성

GBT 분석결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유형은 ①노동시장미진입형 ②상급학교진학형 ③장기준비형 ④단기준비형 ⑤불안정노동형 ⑥상용이탈형 ⑦상용지속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행유형에 관한 보다 입체적인 해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유형을 재분류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표 9). 먼저 취업과 미취업으로 구분하였는데, 미취업에는 노동시장미진입형과 상급학교진학형이, 취업에는 나머

17) 각 집단의 구체적인 월별 노동시장 상태 분포는 〈부록〉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계적(7집단 모형)



지 유형을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취업을 준비후취업(단기준비형, 장기준비형)과 불안정노동형, 상용취업(상용이탈형, 상용지속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재분류한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9〉와 같다.

먼저 인적자본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체 분석대상자는 대졸이상(53.8%), 전문대졸(28.5%), 고졸이하(17.7%)로 나타났는데, 미취업의 경우 고졸이하(42.1%)가 상당히 많고 대졸이상(42.6%)도 예상보다 많았다. 고졸이하의 미취업자는 상급학교진학형(55.1%)에 의한 것이고, 대졸이상의 미취업자는 노동시장 미진입형(64.7%)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대졸이상의 고학력자들이 취업하는 경우에는 불안정노동형이나 상용이탈형보다는 상용유지형(61.7%)이 많고, 준비후 취업하는 경우에는 단기준비형보다는 장기준비형(72.0%)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대 졸업자는 미취업보다는 취업(32.8%), 장기준비후 취업보다는 단기준비후 취업이나 즉시 취업(상용이탈, 상용지속, 불안정노동형)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졸업당시 훈련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취업의 경우 미취업에 비해 훈련경험이 있는 비중이 컸는데 특히 상용지속형의 4.7%, 단기준비형의 7.0%가 훈련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시 자격증여부는 준비후취업의 경우에 평균보다 다소 높은 비중(38.6%)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위획득이론을 대표하는 특성을 살펴보겠다. 유형에 따라 어머니의 학력분포를 확인한 결과, 노동시장미진입형의 29.4%와 상용이탈형의 34.1%가 저학력 어머니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안정노동형(66.3%)에서는 어머니가 고졸인 비중이 높았고, 상급학교진학형(21.3%)에서는 어머니가 대졸이상의 고학력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형에 따른 아버지의 학력분포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청년의 노동시장이행유형에 따라 아버지의 종사상지위에도 차이가 보였다. 아버지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자녀의 미취업비중(51.3%)이 높았는데, 노동시장미진입형의 52.2%, 상급학교진학형의 50.8%가 아버지가 임금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안정노동형(16.9%), 단기준비형(17.8%)에서 아버지가 사망이나 무직인 비중이 평균보다 높았다. 이행유형간 가구소득도 차이가 있었다. 미취업보다는 취

업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았고, 특히 상용지속형(2,449만원)과 상용이탈형(2,299만원), 장기준비형(2,322만원)에서 가구소득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신호이론을 대표하는 대학위세도를 살펴본 결과, 서울소재 4년제 중상위권대학을 졸업한 경우 미취업보다는 취업비중이 높았고, 취업중에서도 특히 상용지속형(13.9%)의 비중이 높았다. 불안정노동형과 노동시장미진입형에서는 서울소재 4년제 중상위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소재 4년제 중상위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노동시장상태의 두 극단인 노동시장미진입형(32.8%)과 상용지속형(26.7%)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불안정노동형(80.0%)과 상용이탈형(80.0%)의 비중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사회자본론을 대표하는 구직경로를 살펴본 결과, 평균적으로 비공식적 경로를 활용한 비

〈표 9〉 이행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미취업			취업							전체 평균		
	미진입형	학교 진학	계	준비후 취업		계	상용취업		불안정 노동형	계			
				단기 준비	장기 준비		상용 지속	상용 이탈					
사례수(명)	68	127	195	129	50	179	214	44	258	160	597	792	
성별	남성	35.3	33.9	34.4	45.7	42.0	44.7	50.9	50.0	50.8	33.8	44.4	41.9
	여성	64.7	66.1	65.6	54.3	58.0	55.3	49.1	50.0	49.2	66.3	55.6	58.1
졸업 연도	2007	41.2	48.0	45.6	44.2	42.0	43.6	30.8	31.8	31.0	43.1	38.0	39.9
	2008	58.8	52.0	54.4	55.8	58.0	56.4	69.2	68.2	69.0	56.9	62.0	60.1
거주 지역	수도권	39.7	58.3	51.8	43.4	50.0	45.3	44.9	54.6	46.5	43.8	45.4	47.0
	광역시	42.7	33.9	36.9	38.8	30.0	36.3	36.9	31.8	36.1	40.6	37.4	37.3
	도지역	17.7	7.9	11.3	17.8	20.0	18.4	18.2	13.6	17.4	15.6	17.3	15.8
혼인 상태	미혼	91.2	97.6	95.4	99.2	98.0	98.9	96.7	95.5	96.5	98.1	97.7	97.1
	유배우자	8.8	2.4	4.6	0.8	2.0	1.1	3.3	4.6	3.5	1.9	2.4	2.9
교육 수준	고졸이하	17.7	55.1	42.1	8.5	16.0	10.6	3.3	11.4	4.7	16.9	9.7	17.7
	전대졸	17.7	14.2	15.4	31.8	12.0	26.3	35.1	36.4	35.3	36.3	32.8	28.5
	대졸이상	64.7	30.7	42.6	59.7	72.0	63.1	61.7	52.3	60.1	46.9	57.5	53.8
훈련 경험	없음	100.0	98.4	99.0	93.0	98.0	94.4	95.3	97.7	95.7	96.9	95.6	96.5
	있음	0.0	1.6	1.0	7.0	2.0	5.6	4.7	2.3	4.3	3.1	4.4	3.5
자격증	없음	66.2	73.2	70.8	61.2	62.0	61.5	71.0	75.0	71.7	66.3	67.2	68.1
	있음	33.8	26.8	29.2	38.8	38.0	38.6	29.0	25.0	28.3	33.8	32.8	31.9
모 학력	중졸이하	29.4	21.3	24.1	21.7	24.0	22.4	22.0	34.1	24.0	23.8	23.5	23.6
	고졸	63.2	57.5	59.5	65.1	64.0	64.8	62.6	59.1	62.0	66.3	64.0	62.9
	대졸이상	7.4	21.3	16.4	13.2	12.0	12.9	15.4	6.8	14.0	10.0	12.6	13.5
부 학력	중졸이하	19.1	15.0	16.4	16.3	14.0	15.6	14.0	31.8	17.1	20.0	17.4	17.2
	고졸	54.4	44.1	47.7	58.9	44.0	54.8	57.5	47.7	55.8	51.3	54.3	52.7
	대졸이상	26.5	40.9	35.9	24.8	42.0	29.6	28.5	20.5	27.1	28.8	28.3	30.2
부 종사상 지위	사망/무직	17.9	5.6	9.8	17.8	12.0	16.2	11.2	9.3	10.9	16.9	14.1	13.1
	임금근로자	52.2	50.8	51.3	41.9	52.0	44.7	46.3	55.8	47.9	37.5	44.1	45.9
	비임금근로자	29.9	43.7	38.9	40.3	36.0	39.1	42.5	34.9	41.3	45.6	41.8	41.1
	N	67	126	193	129	50	179	214	43	257	160	596	789
대학 위세도	기타	62.7	86.9	78.3	75.6	64.6	72.6	59.4	80.0	62.8	80.0	70.5	72.4
	지방중상위권	32.8	8.2	16.9	17.3	20.8	18.3	26.7	15.0	24.8	14.2	19.9	19.2
	서울중상위권	4.5	4.9	4.8	7.1	14.6	9.1	13.9	5.0	12.4	5.8	9.6	8.4
	N	67	122	189	127	48	175	202	40	242	155	572	761
구직 경로	공식경로	11.8	0.8	4.6	38.8	26.0	35.2	47.7	43.2	46.9	48.1	43.7	34.1
	비공식경로	10.3	0.0	3.6	27.9	10.0	22.9	40.2	52.3	42.3	35.6	34.7	27.0
	무응답	77.9	99.2	91.8	33.3	64.0	41.9	12.2	4.6	10.9	16.3	21.6	38.9
연령(세)	23.2	21.6	22.2	24.0	23.8	23.9	24.4	23.8	24.3	23.2	23.9	23.5	
1인당 가구소득(만원)	2022.4	2049.9	2040.1	1846.3	2322.8	1973.7	2449.9	2299.0	2424.6	2111.6	2201.5	2162.1	

중이 낮았지만(27%), 상용취업의 경우 비공식경로를 활용한 비중(42.3%)이 상당히 높았다. 특히 상용이탈형의 52.3%가 비공식경로를 통해 구직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이행유형간 구직경로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에서 인적자본론, 지위획득이론, 신호이론, 사회자본론에 기초한 이행유형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이 각 이론에서 말하듯 일방향적인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인적자본론에 따라 교육수준이 높고 훈련경험과 자격증이 있는 청년의 경우 미취업보다는 취업가능성이 높고, 취업에서도 불안정노동형태보다는 상용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성공적인 노동시장 이행을 나타내는 상용지속형에 대졸이상의 고학력자 비중이 큰 반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노동시장미진입형과 2년 이상의 장기준비형에도 대졸이상의 고학력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층의 이행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 결정 요인

〈표 10〉은 청년층의 상이한 노동시장 이행유형을 설명하기 위해 인적자본론, 지위획득이론, 신호이론, 사회자본론¹⁸⁾에 기초하여 (다항)로짓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먼저 모형1은 미취업유형(노동시장미진입형, 상급학교진학형) 대비 취업유형(장단기준비형, 불안정노동형, 상용지속·이탈형)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인적자본론과 지위획득이론(가구소득)이 취업유형에 속할 가능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졸이하에 비해 전문대졸과 대졸이상이, 졸업당시 훈련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취업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통계적으로 미미하나 서울소재 4년제 중상위권대학출신이 기타에 비해 취업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 신호이론의 타당성도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졸업당시의 가구소득은 취업유형에 속할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업형태보다는 미취업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년에게 미취업이라는 것이 ‘실패’의 의미가 아니라 ‘생계형 취업에서 벗어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위에서 확인된 학력, 훈련경험, 가구소득, 대학위세도의 영향력이 청년들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앞서 이행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표9)에서 볼 수 있듯이 미취업에 포함되어 있는 상급학교진학형은 대부분 고졸자이고 따라서 대학위세도도 기타에 속하며, 직업훈련경험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력, 훈련경험, 가구소득, 대학위세도의 순수한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모형2와 같이 미진입형대비 취업유형에 속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예상대로 인적자본론과 신호이론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지위획득이론의 가구소득만이 통계적으로 미미한 수준에서 취업유형에 속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졸업당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노동시장미진입형 가능성이 높고,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의 고학력인 경우 취업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당시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미진입형이 많다는 것은 부모의 소득에 의존해 살아가는 ‘갬겨루족’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이다.¹⁹⁾ 한편 미진입형과 취

18) 사회자본론을 대표하는 변인인 구직경로에서 ‘무응답’의 해석은 하지 않도록 한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대부분 무응답이라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19) 그러나 갬겨루족이 부모의 돈으로 ‘일은 하지 않고 놀고 먹는 청년’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교육체계, 노동시장체계, 일자리 구조와 같은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

〈표 10〉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유형 결정 요인

		모형1 (ref.미취업)	모형2 (ref.미진입형)	모형3 (ref.준비후진입)		모형4 (ref.불안정노동형)	모형5 (ref.상용이탈)	모형6 (ref.장기준비)
종속변수		취업	취업	불안정 노동형	상용 취업	상용 취업	상용지속형	단기준비형
인적 자본론	교육수준(ref.고졸이하)							
	전대졸	1.820***	0.349	0.006	0.973*	0.853*	1.708*	1.811*
	대졸이상	1.475*	-0.577	-0.491	0.165	0.477	1.158	0.751
	훈련경험(ref.없음) 있음	1.656*	0.000	-0.557	-0.127	0.480	0.211	1.105
	자격증(ref.없음) 있음	0.207	0.187	-0.251	-0.149	0.078	0.058	-0.373
지위 획득 이론	부학력(ref.중졸이하)							
	고졸	0.149	0.279	-0.415	-0.136	0.256	1.142*	-0.279
	대졸이상	0.192	0.215	0.031	-0.188	-0.349	1.086	-1.357
	모학력(ref.중졸이하) 고졸	0.278	0.199	0.004	-0.156	-0.126	-0.061	0.571
	대졸이상	0.405	1.356*	-0.053	0.187	0.320	0.084	1.871*
	ln(가구소득)	-0.155**	-0.143*	0.039	0.093*	0.058	-0.238	-0.127
	부 지위(ref.사망/무직) 임금근로자	-0.446	0.353	-0.637*	0.187	0.927**	-0.713	-1.509*
비임금근로자	-0.523	0.498	-0.335	0.088	0.464	-0.073	-1.383*	
신호 이론	대학위세도(ref.기타)							
	지방소재중상위권	-0.200	-0.466	0.123	0.926**	0.824*	1.116*	-0.105
	서울소재중상위권	1.007*	1.574	-0.303	0.744*	1.123**	1.565*	-0.954
사회자 본론	구직경로(ref.공식경로)							
	비공식경로	0.100	-0.010	0.010	0.528*	0.594*	-0.524	1.181*
	무응답	-3.519***	-2.392***	-1.375***	-1.585	-0.211	1.626	-1.109*
통제	성별(ref.남성)							
	여성	-0.103	0.090	0.475	-0.234	-0.681*	0.281	0.537
	연령	-0.024	0.181*	-0.053	-0.049	0.034	0.065	0.079
	졸업연도(ref.2007)							
	2008년졸업	0.705*	0.355	0.065	0.629*	0.586*	-0.228	-0.818
	거주지역(ref.수도권)							
	광역시	0.188	0.059	0.059	-0.062	-0.091	0.473	0.206
	도지역	0.779*	0.449	-0.331	-0.382	0.025	1.268*	-0.099
	혼인상태(ref.미혼)							
	유배우자	-1.147*	-2.234**	1.611	2.189*	0.477	-0.529	-1.910
절편	3.127*	-0.793	1.963	0.288	-2.395	-0.431	1.105	
-2LL	-232.149	-151.509	-537.508	-231.152	-86.326	-77.037		
chi-square	347.17***	103.69***	132.12***	57.11***	34.96*	43.03**		
Pseudo R ²	0.428	0.255	0.109	0.110	0.168	0.2183		
사례수(N)	735	597	558	387	234	171		

주 1) *** p<0.001 ** p<0.01 * p<0.05 *p<0.10

2) 표에 제시된 수치는 B값을 의미함

3) 모든 설명변수는 졸업시점의 값을 투입함

업형의 인적자본특성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청년취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적자본 향상에 집중하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모형3은 취업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이는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 중, 어떤 사람은 일정기간의 준비기간을 갖고 취업하고, 어떤 사람은 상용직으로 바로 취업하며, 또

제에서 이야기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임시일용직의 불안정노동형으로 취업을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함이다. 분석결과, 준비후취업형과 불안정노동형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유일한 변인은 아버지의 종사상지위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아버지가 사망/무직인 경우에 비해 준비후취업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사망/무직인 경우, 청년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임시일용직의 불안정노동형이라도 바로 취업을 해야 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지 않고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가정에서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²⁰⁾ 그 외 다른 이론은 준비후취업형과 불안정노동형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했다. 즉 두 유형간에 인적자본특성이나 사회자본 등이 거의 비슷함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준비형과 상용취업형의 차이를 설명하는 이론은 신호이론과 사회자본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대학의 위세도가 높으면 준비형보다는 상용취업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특히 지방소재 4년제 중상위권대학의 경우 기타의 경우보다 상용취업형에 속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론을 대표하는 변인인 구직경로의 형태를 보면, 공식경로에 비해 비공식경로를 활용하면 준비기간 없이 바로 상용직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알선기관등록, 취업박람회 등과 같은 공식경로보다는 개인이 갖는 사회자본을 의미하는 교수추천·지인의 소개와 같은 비공식경로가 청년들의 상용취업에 더 효과적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모형4는 상용취업형에 속할 확률을 불안정노동형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분석결과 모형3과 같이 상용취업형에 속할 확률은 신호이론과 사회자본론이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모형3에 비해 신호이론의 통계적 유의성이 명확해졌는데, 위세도가 높은 중상위권대학 출신인 경우 불안정노동형보다는 상용취업형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식경로에 비해 비공식경로로 구직정보를 얻을 경우 상용취업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외 인적자본론의 교육수준, 지위획득이론의 가구소득도 1% 유의수준에서 불안정노동형보다는 상용취업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상용직형에서도 누가 계속 상용직으로 일하고, 누가 상용직에서 이탈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모형5가 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분석결과 인적자본론의 교육수준, 지위획득이론의 아버지 교육수준, 신호이론의 대학위세도가 1% 유의수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졸이하에 비해 전문대졸인 경우, 위세도가 높은 대학 출신일수록, 아버지가 중졸이하보다는 고졸인 경우에 상용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전문대졸업자, 그리고 대졸자 중에서 소위 '좋은 대학' 출신이 상용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대학 졸업장 자체보다는 '어떤 대학'이냐가 더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안정적인 직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에 초점을 맞춘 전문대학이나 대학위세도가 높은 중상위권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취업을 위해 4년제 대학에 무조건 진학하는 것이 대학진학률 80%대를 넘긴 현 시점에서는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있음을 함축한다.

마지막으로 모형6은 준비후 취업하는 청년들 중 1년 이상의 장기준비하는 경우와 1년 미만 단기준비하는 경우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것이다. 분석결과 지위획득이론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었고, 인적자본론의 교육수준과 사회자본론이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종사상지위가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인 경우, 사망/무직에 비해 장기준비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사망/무직인 경우 그 자녀가 장기적으로 취업준비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으로

20) 그러나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이해된다. 한편 어머니가 대졸이상의 고학력인 경우 단기준비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학력의 어머니는 취업준비기간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²¹⁾ 본인의 학력이 전문대졸업인 경우, 그리고 비공식구직경로를 활용하는 경우 장기준비형보다는 단기준비형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청년층의 졸업 후 48개월 동안의 노동시장 이행궤적을 추정하고 유형화한 후, 이행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양한 이론에 기초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중심추세분석을 활용하여 이행궤적을 추정하고 유형화한 결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은 ①노동시장미진입형(8.6%) ②상급학교진학형(16.1%) ③장기준비형(6.3%) ④단기준비형(16.2%) ⑤불안정노동형(20.2%) ⑥상용이탈형(5.7%) ⑦상용지속형(27.0%)의 7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많은 청년이 속한 유형은 상용지속형이었고, 그 다음으로 불안정노동형과 단기준비형, 상급학교진학형이 모두 15%이상으로 많았다. 이것은 청년층의 학교-직장 이행에 관한 최근의 현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즉 임시일용직, 비정규직과 같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청년의 노동시장 지위,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취업을 유예하면서 취업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높은 대학진학률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노동시장 이행 궤적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7개 유형을 재분류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론에 기초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취업형(3유형~7유형)과 미취업형(1유형,2유형)의 상이한 이행궤적은 거의 대부분 인적자본론으로 설명되었고, 지위획득이론에서는 가구소득만이 영향을 미쳤다. 즉 인적자본이 높을수록 취업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미취업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미취업형에는 상급학교진학형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노동시장미진입형과 취업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인적자본론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지위획득이론만이 취업형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위획득이론은 준비후취업과 불안정노동형을 결정짓는 요인이기도 했다. 아버지가 무직/사망인 경우에 비해 아버지가 일을 하는 경우 준비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더구나 준비기간의 차이, 즉 장기준비형과 단기준비형의 차이도 지위획득이론에 의해 주로 설명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뒤통바라지'가 가능한 경우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선택', 즉 노동시장 진입을 하지 않거나, 임시일용직보다는 취업준비를 하거나, 심지어 장기간의 취업준비도 가능한 상황임을 함축한다. 한편, 불안정노동형대비 상용직형, 그리고 준비형대비 상용직형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상용직 유형에 속할 확률은 신호이론과 사회자본론에 의해 설명이 되었다. 즉 소위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친인척·선배·교수 등의 지인을 통해 구직정보를 얻을 경우 상용직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상의 분석은 청년들의 노동시장진입은 지위획득이론에 의해 주로 설명되고, 진입의 질적 측면은

21)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을 통해 자녀의 노동시장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에 따라, 매개 및 조절효과를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학력이 준비유형에 미치는 구체적인 경로는 이 분석결과로는 알 수 없어 해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신호이론과 사회자본론에 의해 주로 설명됨을 의미한다. 한편 청년층의 노동시장이행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인적자본론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기한다. 첫째, 현재 청년고용관련 정부의 정책은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훈련 강화, 직업체험으로 요약될 수 있다.²²⁾ 그러나 분석결과 청년의 취업은 취업알선기관 등의 공식적 통로보다는 비공식적 사회자본에 더 크게 의존하였으며, 직업훈련이나 자격증은 노동시장진입이나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 어느 곳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고용관련 정책들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러나 이것이 인적자본향상에 초점을 두고 공식적 구직경로들을 발전시키려는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런 정책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들을 추가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대졸업자의 경우 오히려 대학졸업자보다 긍정적인 노동시장 이행유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의 원활한 학교-직장 이행을 위해서는 교육체제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취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이 4년제 대학에 무리하게 진학하는 것은 취업자체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등학교 재학시절에 진학 및 진로지도가 더불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를 성급히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첫째, 사례수와 관측기간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자를 2007년, 2008년 신규졸업자로 제한하였고 졸업 후 48개월 동안의 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분석에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전체 사례수가 793명, 가장 적은 이행유형의 사례수는 44명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조심스러우며, 이는 데이터의 추가 이용이 가능한 시점에서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론 검증시 가능하면 모든 이론을 분석에 포함시키고자 했지만 직업탐색론과 인적자본론의 학점, 어학연수변인 등 소위 ‘스펙’에 관한 변인은 자료의 한계상 제외되었다. 이런 변인이 추가되었을 때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이 또한 후속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행과정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에서 비어있었던 ‘왜?’에 대한 답을 이론에 기초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했다는 점이다. 그 동안 청년층의 이행과정을 분석한 국내연구는 일관되게 배열분석을 활용하였는데, 배열분석이 갖는 통계적 검증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방법론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연구전략을 취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배열분석의 한계인 자의성과 통계적 검증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인 집단중심추세분석을 활용하여 이행과정을 추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론에 근거하여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이론 검증시 청년의 노동시장이행을 설명하는 이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주된 관심 이론이 선별적으로 분석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가 허락한 모든 이론을 포괄적으로 분석에 포함하여 보다 정확한 분석결과를 얻고자 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지위획득이론, 신호이론, 사회자본론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인적자본론의 영향력이 예상과 달리 작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재의 우리나라 청년이 처한 현실을 보다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가 확보되어 추후에 세부적인 연구가 진행이 된다면 청년층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노동시장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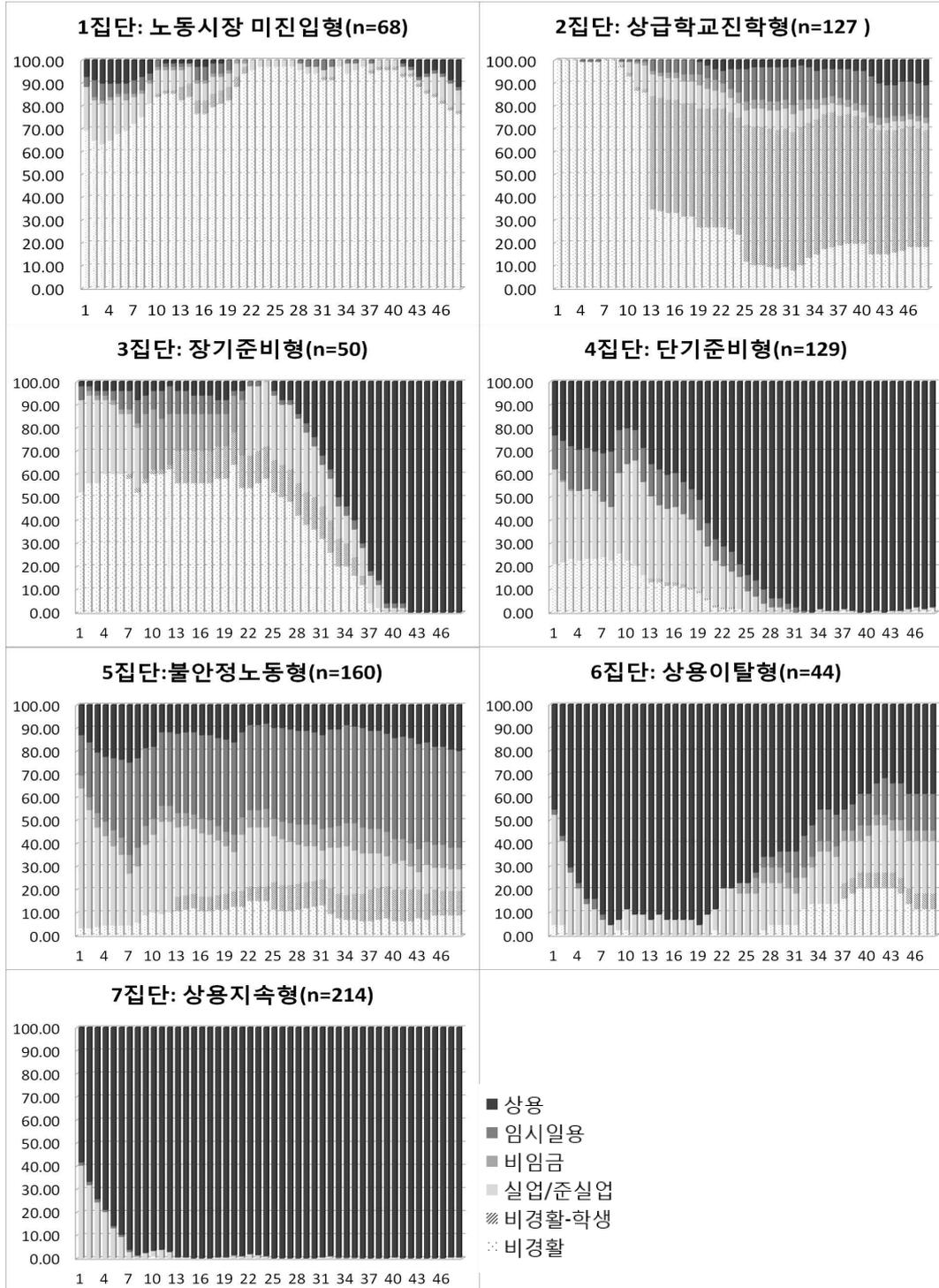
22)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관련 정책(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02. "취업스펙 비용 4269만원 든다." 5월 30일자.
- 고용노동부. 2014. "대상자별 정책-청년" <http://www.moel.go.kr>.
- 권혁진·유호신. 2011. "청년층의 학교에서 고용으로의 이행 특성: 성·학력별 이행과정의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1): 1-31.
- 김성남·최수정. 2012. "청년기의 교육 및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화: 고교계열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31(3): 277-299.
- 김안국·강순희. 2004. "자격취득의 결정요인 및 취업·임금효과." 『노동경제논집』 27(1): 1-25.
- 김정숙. 2009. "대졸자들의 취업준비 활동의 차이 및 직업이행 효과." 『교육과학연구』 40(1): 141-165.
- 김종성. 2013.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의 계층화에 관한 연구-사회계층별 부모의 개입 전략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종성·이병훈. 2012. "대졸청년층의 비경활상태 결정요인에 관한 중단연구." 2012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자료집. pp.235-253.
- 김종성·이병훈·신재열. 2012. "청년층 구직활동과 하향취업." 『노동정책연구』 12(2): 51-73.
- 김혜연. 2010a. "우리나라 중·고령 여성의 생애 노동과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출산코호트별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3): 141-169.
- _____. 2010b. "중·장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경로 유형화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6(1): 233-259.
- 남기곤. 2009. "노동시장 : 청년층 미취업자 특성에 관한 분석 -미취업 결정요인 및 낙인 효과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15(2): 99-125.
- 문혜진. 2012. "노동경력의 변화와 노동성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3. "외환위기 전후 청년 코호트의 노동경력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65(1): 201-226.
- 민현주. 2012. "자녀출산과 양육시기동안의 여성취업 유형화." 『한국사회학』 46(2): 61-87.
- 박성재·반정호. 2006. "대졸 청년층 취업준비노력의 실태와 성과." 『한국인구학』 29(3): 29-50.
- 박진희·김용현. 2010. 『경제활동 및 직업이력 유형별 경력개발경로 분석-경력초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용정보원.
- 성지미·안주엽. 2012. "취업사교육과 첫 일자리." 『한국경제연구』 30(3): 5-46.
- 안관영·조영환. 2012. "직업탐색행동이 직업탐색성가에 미치는 효과 및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대한경영학회지』 25(1): 111-130.
- 안주엽·홍서연. 2002.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노동경제논집』 25(1): 47-74.
- 우혜봉·윤인진. 2008. "경쟁리스크 생존모형을 통한 청년층의 첫 일자리 획득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9(2): 225-250.
- 이규용·김용현. 2003.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3(2): 69-93.
- 이자형·이기혜. 2011. "대졸자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의 구조적 관계: 비인지적 능력의 효과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14(2): 27-54.
- 이태희. 2012. "청년고용정책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 『HRD review』 2012년 9월호: 116-125.
- 이현성. 2010. "가계 소득이 젊은이의 실업기간에 미치는 영향." 『경제연구』 31(2): 47-84.
- 장기영. 2008. "대학 졸업자의 첫 노동시장 이행 성과 결정요인."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상수. 2008. "청년층의 학교-직장 이행." 『한국사회학』 42(6): 106-139.

- 정태영·이기엽. 2005. "대졸자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8(2): 159-184.
- 채구묵. 2007. "신규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9(4): 35-61.
- 채창균·김태기. 2009. "대졸 청년층의 취업 성과 결정 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28(2): 89-107.
- 통계청. 2014. "e-나라지표-부문별지표-청년고용동향" <http://www.index.go.kr>.
- 홍백의·김혜연. 2010. "중·고령자의 고용형태별 퇴직과정 유형과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17(1): 291-319.
- 황영정·백병부. 2008. "대졸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11(2): 1-23.
- Brzinsky-Fay, C..2007. "Lost in transition? Labour market entry sequences of school leavers in Europ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4): 409-422.
- _____. 2013. "The Measurement of School-to-work Transitions as Processes." *European Societies* 16(2): 213-232.
- Granovetter, M. 1974. *Getting a Job: A study of contacts and care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ynes, K. and M. Clarkberg. 2005. "Women's employment patterns during early parenthood: A 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1): 222-239.
- Jones, B. L., D. S. Nagin and K. Roeder. 2001. "A SAS procedure based on mixture models for estimat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9(3): 374-393.
- Jones, B. L. and D. S. Nagin. 2007. "Advances in Group-based Trajectory Modeling and an SAS Procedure for Estimating Them."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35: 542-71.
- Jones, B. L. and D. S. Nagin. 2013. "A Note on a Stata Plugin for Estimating Group-based Trajectory Model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42(4): 608-613.
- Levine, J. H., 2000, "But what have you done for us lately?"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9(1): 34-40.
- Nagin D.. 1999. "Analyzing Development Trajectories: A Semiparametric, Group-Based Approach." *Psychological Methods* 4(2): 139-157
- Topel, R. H., and Ward, M. P., 1992, "Job mobility and the careers of young me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2): 439-479.
- Wu, L. L., 2000, "Some comments on 'sequence analysis and optimal matching methods in sociology: Review and prospec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9(1):41-64.

〈부 록〉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유형별 졸업이후 월별 노동시장상태분포



Abstract

A Study on the Type of School-to-Work Transition and its Determinants

Park, Mi He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ng, Baeg Eui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presentative type of school-to-work transition trajectory of youth in Korea and to find out factors affecting on the trajectory type. This study used the second wave(2007~2012) of Youth Panel data for Graduates in 2007 and 2008. Using the group-based trajectory method, we examine youth's transition trajectories for 48 months after graduating. As a result, we identified seven trajectory types: ① not-entered ② entering school ③ long-term preparation ④ short-term preparation ⑤ precarious working ⑥ keep-permanent working and ⑦ exit-permanent working. Using various logit and multinomial logit model, we identified the determinants of the different types of trajectory based Human Capital Theory, Status Attainment Theory, Signaling Theory, Social Capital Theory. The results show that the Status Attainment Theory explained very well whether to enter the labor market. The Signaling Theory and the Social Capital Theory explained well the quality of the labor market entry. But the Human Capital Theory explained the trajectory types only a limits.

key words: school-to-work transition, typology, group-based-trajectory method